

## 한일 관계 동향(2020.11.01.~2020.11.13.)

### 1. 미츠비시 중공업 자산매각 공시송달 관련

- 일본 언론들은 정신대 강제동원에 연관된 미츠비시 중공업의 자산매각과 관련, 대전지방법원의 공시송달이 11월 10일 효력을 발생했다고 보도<sup>1)</sup>
  -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1월 미츠비시 중공업에 배상을 명령한 확정 판결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이 해당 기업의 한국 자산의 매각 관련하여 의견을 묻는 심문서 등의 공시송달 효력이 11월 10일 0시에 발효
    - 대전지방법원은 10월 29일에도 자산매각 공시송달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송달의 효력은 12월 30일에 발생할 예정임. 매각 대상 자산은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으로 총 8억 400만 원 상당임.
  - 산케이신문은 대전지방법원이 2개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연말 이후에 자산 현금화와 관련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
- 미츠비시 중공업은 심문서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sup>2)</sup>
  - 미츠비시 중공업은 11월 10일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해결’ 되었으며,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사 의견서를 제출할 것” 이라고 발표
-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기존 자세를 견지<sup>3)</sup>
  - 가토(加藤) 관방장관은 11월 1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 및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향후에도 한국 측이 조기에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도록 앞으로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1) 「韓国・元挺身隊員訴訟：韓国・元挺身隊員訴訟 三菱重資産売却、手続き一つ進む」, 「毎日新聞」, (2020. 11. 11). 및 「挺身隊訴訟 資産売却手続きに効力 韓国地裁 三菱重特許など7200万円」, 「産経新聞」, 2020. 11. 10). 및 「「徴用」三菱に“資産売却の書類”届いたとみならず 韓国 裁判所」, 「NHK NEWS WEB」, (2020. 11. 10).

2) 「挺身隊訴訟 三菱重コメント「意見書提出の予定」」, 「産経新聞」, (2020. 11. 10).

3) 「令和2年11月10日(火)午前」, 「内閣官房長官記者会見」, (2020. 11. 10). 및 각주 1의 산케이 신문

## 2. 박지원 국정원장의 스가 총리 면담 관련

□ 박지원 국정원장은 11월 10일 스가 총리를 만나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제안하였으며, 스가 총리는 한일 관계를 개선할 해결책을 요구<sup>4)</sup>

○ 박지원 국정원장은 스가 총리를 만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은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양국 정상에 발표하도록 제안<sup>5)</sup>

-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양국 정상에 발표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 표명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

○ 한편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로 매우 어려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계기를 한국 측이 마련하도록 요구<sup>6)</sup>

□ 일본 정부는 박 원장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

○ 가토 관방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박 원장의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과 관련, “새 한일 공동선언 작성을 포함하여 한일 관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발언<sup>7)</sup>

○ 한편 마이니치 신문은 “선언으로 한일 간 현안이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공동선언이 실현될지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보도

○ 또한 마이니치 신문은 수상관저 측에서는 여론을 의식, 박 원장에게 기자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후문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박 원장이 정문으로 들어왔으며, 회담 뒤 기자단 취재에 응한 것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었으며, 한국 고위관료의 접근 방식이 오산이었다고 보도<sup>8)</sup>

4) 「일본 언론 "박지원, '문재인-스가 선언' 제안...스가는 난색」, 「연합뉴스」, (2020. 11. 11) 및 「菅首相、日韓改善策を要求 韓国高官は新たな「宣言」言及 表敬訪問」, 「朝日新聞」, (2020. 11. 11). 및 「菅首相 韓国情報機関トップと会談 健全な日韓関係へ対応求める」, 「NHK NEWS WEB」, (2020. 11. 10).

5) 「菅首相：首相、韓国高官と会談 情報表沙汰、官邸に誤算 世論の反発配慮、実らず」, 「毎日新聞」, (2020. 11. 12).

6) 「菅首相：新共同宣言、韓国提案 高官、菅首相と会談」, 「毎日新聞」, (2020. 11. 11).

7) 「令和2年11月11 (水) 午前」, 「内閣官房長官記者会見」, (2020. 11. 11).

8) 「菅首相：首相、韓国高官と会談 情報表沙汰、官邸に誤算 世論の反発配慮、実らず」, 「毎日新聞」, 「2020. 11. 12).